



순천대 정구 '전국 최강'

순천대가 제45회 전국대학정구추계연맹전 정상에 차지하면서 한국대표팀으로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순천대는 29일 순천팔마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박상엽 등의 선전에 힘입어 강호 인하대를 3-2로 꺾고 대회를 품어 안았다. 이날 우승으로 순천대는 오는 6월13일 일본에서 열리는 전일본대학왕좌결정전에 한국대표로 참가하는 기쁨도 동시에 누렸다.

이날 결승에서 순천대는 첫 복식조로 나선 김우주-김현수 조가 상대 방성민-김영 조를 4-0으로 가볍게 제압한 데 이어 두번째 경기 단식에서도 박상엽이 류은 우를 3-1로 꺾으며 경기스코어 2-0으로 순탄한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순천대는 이어서 열린 복식 배상종-김만영 조와 단식 장인성이 각각 3-4, 2-3으로 아쉽게 패해 경기를 2-2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고 말았다.

마지막 경기 복식에 나선 박상엽-장인성 조는 환상의 콤비플레이로 인하여 송승중-조재현 조를 시종 압도하며 여유있는 경기를 펼친 끝에 4-0으로 누르고 팀



강호 건국대 꺾고 춘계연맹전 단체전 우승 '전일본대학왕좌결정전' 한국대표 영예도

의 우승을 이끌었다.

올 시즌 첫 단체전 우승을 거둬으로써 순천대는 지난 회장배 대회 단체전 준우승의 설움도 함께 씻었다.

전국 무대 정상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순천대는 지난해 국무총리기 단체

전과 개인단식(김우주)을 휩쓸었고, 추계 대학연맹전에선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1992년 창단한 순천대정구팀은 그간 이문재(현 순천대 코치)·유영동(서울농협 코치) 등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한 정구명문팀이다. /서승원기자 swseo@



29일(한국시간) 새벽 열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프 누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럽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바르셀로나의 카를레스 푸욜이 첼시의 말로우다와 볼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합기도聯 회장 이영희씨

광주시생활체육회가 도연합회 신임 회장에 이영희(69·사진)씨가 최근 취임했다.

이 회장은 지난 25일 동강체육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동호인이 중심이 되는 생활체육합기도연합회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적극적인 생활체육 홍보를 통해 합기도 인구 저변확대에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회장은 광주시체육회 이사·한국대학 테니스연맹 부회장·전남대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한국피겨 쌍둥이마자 김나영

"캐나다서 올림픽 준비"

김나영(19·고려대)과 함께 한국 여자 피겨를 이끄는 김나영(19·인하대)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겨냥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캐나다 토론토에서 준비한다.

김나영의 어머니 신금숙 씨는 29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내달 중순에 캐나다 토론토로 떠나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여름 전지훈련을 치르기로 했다"라며 "3개월 동안 올림픽에 나설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표현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영은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치러진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17위를 차지, 지난해 대회(19위)보다 성적을 두 계단이나 높이며서 국제무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김나영은 이미 국내에서 새로운 쇼트프로그램을 완성했고, 캐나다에서 프리스케이팅 안무와 배경음악을 준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전지훈련 동안 김나영은 3명의 외국인 전담 코치와 더불어 점프와 표현력, 웨이트 트레이닝에 중점을 두는 첫 올림픽 무대에 도전한다는 각오다. /연합뉴스

히딩크의 첼시, 바르셀로나 안방서 '무승부'

챔스리그 4강 1차전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첼시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명문 바르셀로나와 '별들의 전쟁'에서 득점 없이 비겼다.

첼시와 바르셀로나는 29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프 누에서 열린 2008-200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90분 내내 치열한 접전을 펼쳤지만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로써 양 팀은 내달 7일 첼시 홈 구장인 스탬퍼드브리지에서 열린 4강 2차전에서 이겨야 결승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다.

첼시와 바르셀로나는 또 이번 무승부로 2000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처음 맞붙은 이후 3승3패로 백중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맨유 7월 22일 입국 FC 서울과 친선경기

7월2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 서울과 친선 경기를 갖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경기 이틀 전인 같은달 22일 입국한다.

맨유 아시아 마케팅 매니저를 맡는 로

빈 데이비드 제임스와 아시아투어 주관사인 프로이벤트 폴 J.감 사장, 한국 경기 프로모터인 마스텐테이먼트 김용관 대표를 29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코리아 투어 2009 친선경기 기자 회견'을 통해 맨유의 방한 일정을 밝혔다.



30일(목)

▲NBA 플레이오프 서부컨퍼런스 8강 5차전 <마이애미 : 애틀랜타>(09 : 00·SBS스포츠)

▲포니우 축구리그 (14 : 00·MBC)

▲대통령배 고교야구대회 (17 : 20·KBSN SPORTS)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 히로시마> (17 : 50·SBS스포츠)

▲프로야구 <LG : 한화>(18 : 10·KBSN SPORTS), <히어로즈 : 삼성>(18 : 20·X-sports), <두산 : 잠실>(18 : 20·MBCE-SPN), <기아 : 롯데>(21 : 00·SBS스포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축구도 잘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사고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중고 주말리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29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주대학교 강당. 허정무(54) 축구 대표팀 감독은 전주 지역 중학교 선수 100명을 앞에 놓고 '공부하는 축구 선수'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쳤다.

허 감독은 이날 '2009 대교 눈높이 전국 중등 축구리그'의 일환으로 대한축구협회에서 마련한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 초청 축구 클리닉에 앞서 '축구 새싹'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들려줬다. 그는 "올해부터 초중고 주말 리그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지금이러다 시작해서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허 감독은 "수준 높은 축구를 하려면

사고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라며 "공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사고의 유연성이 길러진다. 이것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주말리그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축구 선진국들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2~3주 동안 대회를 치르면서 선수를 혹사해 왔다. 부상 선수가 있어도 무리하게 출전시키고 학교 수업은 완전히 못 듣게 했다"라며 "이래서는 운동하는 기계만 만들어 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허 감독이 제시하는 '사고의 유연성'을 가진 축구선수'로 성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허 감독은 간단한 실전요령으로 매일 일기를 쓰고 자기 전에 단 5분이라도 명상의 시간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허 감독의 생각이 옳은 선수들은 상대 수비수의 방어가 들어올 때 '에라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무조건 슈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야만 수비수를 피해 경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허정무 감독 축구 클리닉

"주말리그제 늦었지만 다행"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한국경매 한국법률경매(주) 0621 225-1688 H.010-3565-2888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매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순해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업체) ※ 투자자실 분 및 재테크상담 대환영

Table with real estate listings for '아파트' (Apartment) and '토지' (Land) across various districts like Seogu, Namgu, and Bukgu. Columns include area, price, and location.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062) 227-9600 FAX: (062) 227-9500

회춘의 '큰놈' 파워마카 advertisement. Includes text about the product's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17개월분 90,000원 / 2개월분 150,000원